

영적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정령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자제도, 시간도, 복장도, 예물도, 무엇 이든지 정성을 다해 드리게 되지요.

2010년 만민 캘린더

마리보세요. 곧 배부해드립니다.

당회장님 설교말씀 손쉽게 듣는 5가지 방법

MP3, 테이프, CD, ARS(자동응답서비스) 등 언제 어디서나 당회 장님 설교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성도들을 위한 매체를 소개해 드립니다.

다니엘철야 15년 기타 반주해온 윤창수 장로 외

"15년간 다니엘철야에서 기타 반주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는 윤창수 장로의 간증, "들리지 않던 귀가 들리게 되었다"는 고연정 권사의 간증.

# 만민뉴스

제409호 2009년 12월 13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 사도 바울 통한 손수건 역사 권능의 손수건으로 이어지다



파키스탄 라호르에서 열린 손수건 집회에서 대전만민교회 담임 길태식 목사가 권능의 손수건을 들고 파키스탄의 영적 부흥과 질병치료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 러시아, 독일, 페루, 케냐, 콩고민주공화국, 인도, 필리핀, 몽골, 중국, 일본, 태국, 베트남 등 세계 곳곳에서 많은 주의종들이 손수건 집회를 인도했다. 이 목사의 기도를 직접 받기 어려운 국내 및 해외 지교회에서 손수건 집회 요청이 쇄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성도들도 손수건 기도의 위력을 체험하고 영적 믿음을 키워나가고 있다. 응답과 축복, 질병과 문제를 해결하는 손수건의 역사는 앞으로 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단 얼마나 믿음으로 행하고 기도를 받느냐가 관건이다.

지난 12월 4일, 파키스탄 선교팀이 18박 19일간 파키스탄 순회 목회자 세미나와 손수건 집회를 마치고 입국했다.

파키스탄에서는 정부군이 북서부 국경지대에 있는 탈레반 거점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선 지난 10월 중순 이후 무장세력에 의한 보복 테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주요 도시의 상가 밀집 지역과 군 및 경찰 관련 시설에 테러가 집중됐다. 그럼에도 성도들의 요청으로 라호르, 싸하왈, 파이살라바드, 고즈라, 카라치, 미르푸르카스 지역

에서 목회자 세미나와 손수건 집회를 가졌다. 강사 길태식 목사가 손수건으로 기도해 줄 때 의자에 실려온 중풍병자가 치료받아 걷는가 하면 온몸, 가슴, 어깨 통증이 사라지고, 위장, 신장, 식도 간의 이상과 천식, 여성질환 등이 치료되었다. 시력이 회복되었다고 간증하는 이도 있었다. 미르푸르카스 집회에서는 약 1천 킬로 떨어진 곳에서 1시간여 동안 핸드폰으로 말씀을 듣던 세레나스 성도가 심장병을 치료받았다. 라호르 집회에는 1만 4천 명 남짓한 사람이 손수건 기도를 받기

위해 참석했다. 손수건 집회는 1999년 9월, 길 목사가 당회장 이재록 목사에게 기도 받은 손수건으로 파키스탄에서 집회를 인도한 때부터 시작했다. 당시 파키스탄 집회에서 그가 설교 후 손수건을 들고 기도해 주자 놀랍게도 악귀에 시달리던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고, 병어리가 말하고, 실명된 눈이 보이며 관절염이 치료되었다. 성경에도 사도 바울의 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기도해 줄 때 병이 떠나고 악귀가 나간 일이 기록돼 있다(행 19:11-12).

이후 성도들도 손수건을 준비해 이 재록 목사의 기도를 받아 질병치료를 위급상황에 활용했다.

### 노소화합 경로대축제 특별 협찬

지난 12월 7일 오전 11시, 중구 구민회관에서 사랑나눔복지센터 주최, 중구 노인회 후원 '노소화합 경로대축제'가 우리 교회 특별 협찬

으로 개최됐다. 새 가정 및 새로운 사회를 이루자는 취지로 개최된 이날 행사는 왕종근 전 KBS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됐다. 1부 예배에는 전 서울여대 총장 정구영 목사의 설교가 있었다. 정 목사는 "현실의 나이에 자기의 한계를 정하지 말고 청춘이라는 마음으로 적극적이고, 상대를 위



'노소화합 경로대축제'에서 우리 교회 정구영 목사(둘째 줄 가운데)가 설교, 예능팀이 공연, 2여선교회에서 안내를 담당했다

해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자"고 메시지를 전했다. 2부에는 사랑나눔복지센터 재단 이사장 오현혁 목사의 개회사, 일산센터장 장화숙 씨의 경과보고 등이 있었다. 3부에는 우리 교회 예능위원회 예술선교단의 무용, 빛의소리중창단의 찬양, 새렘 국악선교단의 민요 메들리 공연이 펼쳐졌다. 오 목사는 "오늘 행사가 천국 잔치가 되어 어르신들에게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과연 그대로 이루어졌다"며 기뻐했다. 우리 교회 2여선교회연합회 회장단들은 한복을 입고 안내를 담당했다.

### 알려주세요

**기사 실어드리겠습니다** 만민뉴스는 교회 구성구석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교회 소식을 빠짐없이 취재하여 보도하고 싶습니다. 이는 성도들을 더 잘 섬기고 성도들과 항상 가까이하며, 진정한 교회생활의 길잡이 매체로서 제 역할을 다하는 길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일들을 성도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은 분은 언제나 만민뉴스에게 알려주십시오. 정성을 다해 취재하여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만민뉴스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신문입니다.

#### 만민뉴스 기사제보 안내

- 알려주실 내용
  - 교회(지교회 포함), 부속기관, 선교회 등 모집 안내
  - 교회(지교회 포함), 부서에서 하는 크고 작은 행사
  - 성도 본인 또는 잘 알고 있는 성도의 미담, 간증 등 신앙체험기
  - 우리 교회와 관련하여 지역 언론, 인터넷, 방송 등에 보도된 사례
- 알려주시는 방법
  -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 정확하게 알려주십시오
  - 제보자 이름, 연락처, 소속 교회
- 알려주시는 때
  - 언제나 좋습니다
- 알려주실 곳
  - e-mail : news@manminnews.com
  - 전화 : 만민뉴스 편집국 신문팀 070-8240-5612~4  
010-7371-2073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의식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경작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 경배하는 시간이지요. 영이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1. 마음의 소원까지도 응답받는 영적 예배

창세기 4:3~5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양의 첫새끼와 기름으로 드린 피의 제사는 열납하셨으나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드린 제사와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제물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형태로 드려진 예배나 자기 방식대로 드리는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면 이를 기쁘게 받으시고 마음의 소원까지도 이루어 주시며 축복해 주십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자 회중으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나아가 일천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한 지혜와 지식뿐 아니라 그가 구하지도 않은 부와 재물과 존영까지 주심으로 솔로몬 이전이나 이후에 그와 같음이 없게 하셨습니다(왕상 3:3~15, 대하 1:1~13).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므로 얼마나 정성을 다해 예배를 준비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찬양하는지, 이런 중심의 향을 받으시는 것이요. 진정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중심이라면 그것이 사모하는 행함으로 나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예배에 한 번 참석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 영적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당회장 이재록 목사

다.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드리는 삶의 연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며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1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신 대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2.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자세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란 성경 66권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한 속에서 마음에 양식을 삼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과 함께 마음 중심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란 하나님께 대한 바른 이해와 함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으로 기쁨과 감사, 기도와 찬양, 행함과 예물로써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예배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례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

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예배시간에 지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이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행할 때에 마음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예배시간에 지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례히 행하는 것입니다. 예배시간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약속된 시간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 시간 안에 도착하여 기도하면서 마음을 정돈하고 예배드릴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2) 예배시간에는 말씀을 듣기에 전념해야 합니다 거룩한 단 위에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양 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됩니다. 따라서 설교 시간에 멍하니 다른 곳을 쳐다보고 옆사람과 소곤 소곤 하거나 가정이나 직장에 대한 염려 근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 앞에 무례히 행하는 것입니다. 예배시간에 즐기거나 잠을 자는 것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입니다.

3) 술과 담배를 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초신자이기 때문에 아직 믿음이 연약하여 술 담배를 끊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죄 있다고 탓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참석하는 시간만큼은 술 담배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통령 앞에 나갈 때도 술을 마시고 얼굴이 벌개서 나갈 수 없는데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나오면서 술, 담배를 하고 나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4) 예배 분위기를 흐리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시간에 어린아이가 울거나 마구 떠들며 돌아다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마음을 모두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만드는데 하나님께 무례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예배드릴 때에 껌을 씹는다거나 예배 도중에 일어나 나간다면 이것도 무례한 행동입니다. 설령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해도 어떤 이유에서든 예배에 참여했다면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예배시간에 모자를 쓰고 있거나 티셔츠나 운동복 차림으로, 또는 슬리퍼를 신고 예배드리러 오는 경우 모두 하나님을 민망케 하며 예의에서 벗어나는 일들이니 할 수 있는 한 정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요예배 같은 경우 일타에서 곧장 교회로 오는 경우도 있고, 모자를 쓸 수밖에 없는 어떤 사정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판단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겸비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응답과 축복으로 갚아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함으로 천군천사로 불꽃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기 때문에 한 주간 행복한 축복도 받게 됩니다.

\* 자세히 보시려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 ([www.manmin.org](http://www.manmin.org))에서 ‘설교’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2010년 만민 캘린더 나왔어요

12월 13일 주일부터 2010년 캘린더가 교구장과 선교회 지도교사를 통해 성도 가정에 한 부씩 배포된다. 캘린더 규격은 38cmX57cm이며, 총 13장으로 되어 있다. 1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가졌던 주요행사 사진이 실려 있어 하나님 은혜를 되새기게 할 것이다.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e-mail [news@manminnews.com](mailto: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3번지  
대표전화 02) 818-7000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빛과소금성결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요업성결교회 예배	11:00 PM
주일 저녁예배	3: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대학·가나안·청년·비율·마리아]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니엘철야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 당회장님 설교 말씀 편리하게 들을 수 있는 5가지 방법

지난 설교나 그 주 설교를 다시 듣고 싶으시거나 예배를 참석하지 못해 설교를 못 들으신 성도님들을 위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함으로 성도님들의 삶에 영육간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길 바랍니다.

## 1 02-830-5320 ARS(자동응답서비스)

1994년 9월 4일, 음성정보 서비스의 일종인 음성전화사서함이 개설되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설교를 듣고 기도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당시 딸의 만성중이염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 우리 교회 조일근 장로가 음성전화사서함을 헌물한 것이 시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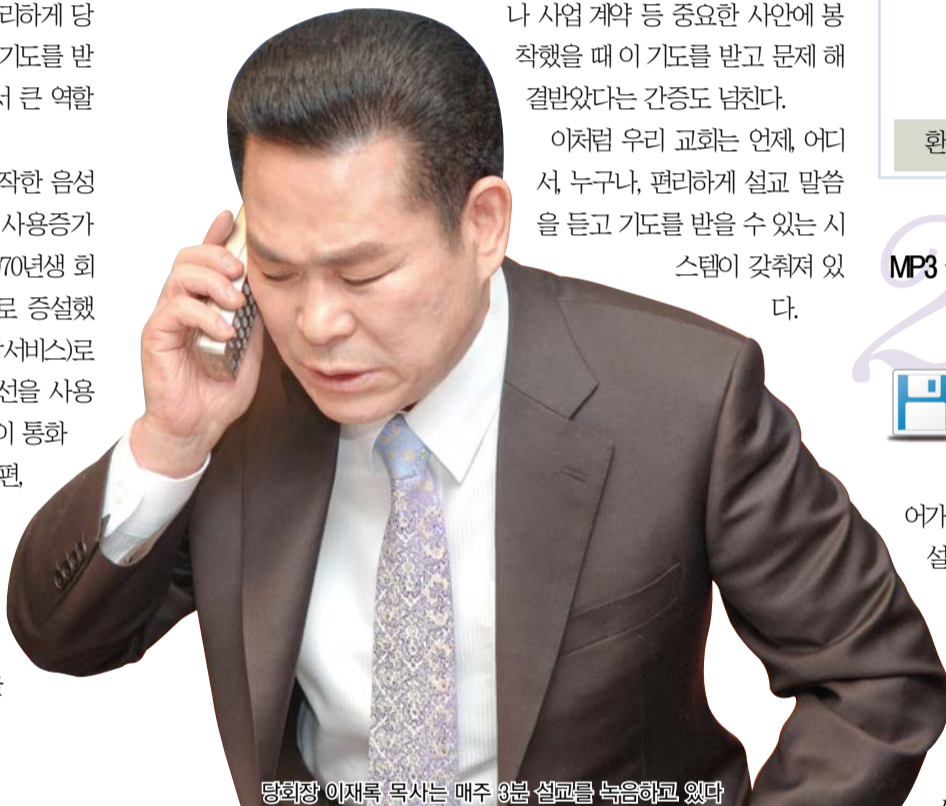
음성전화사서함은 당시 유행하던 통신 매체로서 획기적인 일이었다. 이 시스템은 비록 세월이 흘러도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편리하게 당회장님 설교를 듣고 환자기도를 받을 수 있는 간이 매체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처음에는 8회선으로 시작한 음성전화사서함은 성도들의 사용증가로 2003년에 남선교회 1970년생 회원들의 헌물로 12회선으로 증설했고, 지금은 ARS(자동응답서비스)로 나래 인터넷(주)에서 20회선을 사용하고 있다. 한 번에 20명이 통화할 수 있는 회선이다. 한편, 통화량 폭주 등 만약을 대비해 (주)KT에서 운영하는 02-152(교환 3200, 7000번) 전화를 상설, 환자를 위한 기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ARS 접속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하루 평균 7000여 건이 접속되고 있다. 사용 횟수로는 환자를 위한 기도가 가장 많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 3분 설교 등의 순이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가 매주 새로운 설교를 녹음하는 3분 설교는 농어촌 및 산간, 도서 지방 등 인터넷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의 성도나 군 생활하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있다. 또한 많은 성도가 직장, 가정 등에서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이 설교를 듣고 에너지 재충전하며 활기찬 하루를 보낸다. 또한 교통사고와 화상 등 갑작스런 사고를 당해도 전화로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고 수많은 사람이 위험한 고비를 넘겼다. 믿음으로 기도를 받는 사람들마다 고혈압, 뇌출혈, 뼈 골절, 감기, 배탈, 고열, 갑작스런 통증 등 크고 작은 질병을 치료받아 성도들에게는 가정 상비약과 같다. 그리고 각종 시험이나 사업 계약 등 중요한 사안에 봉착했을 때 이 기도를 받고 문제 해결받았다는 간증도 넘친다.

이처럼 우리 교회는 언제 어디서, 누구나, 편리하게 설교 말씀을 듣고 기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매주 3분 설교를 녹음하고 있다

### ARS 체험기

## “군 복무 중 ARS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였습니다”



송승철 형제

2년 전, 해병대를 지원한 나는 백령도로 자대 배치를 받았다. 서해 최북단의 섬 백령도에서의 군 생활은 힘든 일도 많았다. 이런 내게 ARS 당회장님 3분 설교는 많은 위로와 힘이 되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던 나는 카세트를 사용할 수 없어 ARS를 통해 설교를 들었다. 매주 새롭게 업데이트 되는 말씀을 마음에 새겼고, 한 주간 이것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었다.

백령도에서 인권을 가려면 배로 5시간이 넘게 걸린다. 그래서 날씨가 좋지 않으면 휴가도 갈 수 없다. 한 번은 휴가 당일 새벽 2시까지 야간 근무를 서는데 강풍주의보가 발령됐다. 나는 ARS 환자기도를 받고 맑은 날씨를 기약하며 편안히 잠들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믿기지 않을 만큼 좋은 날씨여서 휴가를 나올 수 있었다. 이처럼 ARS 기도를 받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

직접 말씀을 듣고 기도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ARS를 통해 생명의 말씀과 기도를 공급받을 수 있음에 감사했다.

지난 7월에 제대한 나는 군대에서 체험한 것들이 믿음이 되어 더욱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02) 851-3845  
070-8240-5609 (예금주 위성영)

국민은행 362-21-0201-106  
우리은행 072-255732-02-201  
농협 100072-52-061722  
우체국 012419-02-047269



## ARS(자동응답서비스) 안내

당회장 이재록 목사 설교를 전화로 듣고 생활과 환자를 위한 기도를 전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02-830-5320

-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 : 10번
- 운전을 위한 기도 : 20번
- 3분 설교 : 30번(매주 새로운 설교)
- 환자를 위한 기도 : 40번
- 하루를 마치는 기도 : 70번
- 감동의 찬양 : 50번
- 은혜의 찬양 : 60번

이용방법

1. 먼저 전화번호 02-830-5320을 누르시고
2. 신호음이 떨어져 안내방송이 나오면
3. 안내방송에 따라 교환번호를 누르시면 됩니다

환자 기도는 02-152(교환 3200번, 7000번)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2 MP3 설교 다운로드 서비스



우리 교회 홈페이지(www.manmin.org)에 MP3 설교 다운로드 서비스가 있다. 클릭해 들어가면 정기에배, 주제설교, 강해설교, 헌신예배, 국내 부흥성회, 금주의 성경구절을 다운로드해 들을 수 있다. 매주 업데이트 되므로 그 주 설교를 주중에 바로 들을 수 있다. 특히 욕기 강해 MP3 서비스가 시작되어 194편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이 외에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 환자를 위한 기도, 운전자를 위한 기도, 하루를 마치는 기도도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 4 설교 테이프, MP3 파일, CD 구입



우리 교회 서점에 가면 십자가의 도, 믿음의 분량, 요한계시록 강해 등 세트 말씀을 MP3 파일로 구입할 수 있다. 서점에서는 매주 설교 말씀과 각종 말씀을 테이프 제작해 판매하고 있으며, CD로 원하는 분들에 한해서는 주문 제작도 가능하다.

## 3 설교 동영상 및 텍스트 서비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우측 상단에 있는 메뉴에서 설교를 클릭하면 각종 설교를 듣고 텍스트를 제공받을 수 있다. 주일 대예배,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 말씀은 매주 업데이트 된다. 따라서 주중에 곧바로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우리 교회 영어, 일본어, 중국어(간체, 번체), 불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홈페이지에 각국 언어로 매주 정기에배 말씀이 동영상 및 텍스트로 올라간다.

각국 언어 홈페이지 주소 www.manmin.org/english, japanese, chinese(간체), Tchinese(번체), french, spanish, Russian

## 5 GCN 인터넷 TV와 위성방송 TV 설교 시청



GCN 위성 안테나를 설치해 TV 설교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으며, 또한 인터넷 TV로도 시청할 수 있다. 인터넷 TV(IPTV)는 인터넷 방송을 컴퓨터 모니터가 아닌 TV를 통해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리모컨을 이용한 간단한 작동으로 GCN 위성방송뿐만 아니라 녹화방송(VOD)도 원하는 시간에 선택해서 고화질로 시청할 수 있다.

문의 : 02-824-7107(만민 TV)



밤 8시 45분경, 한 남자가 우리 교회 본당 앞쪽을 향해 걸어온다. 매일 다니엘철야를 참석하는 사람이라면 그 시간에 어김없이 그를 볼 수 있다. 바로 15년간 변함없이 다니엘철야 기타 반주를 해온 윤창수 장로이다.

윤 장로는 사춘기 때 가정문제로 인해 많은 어려움과 혼란 속에 방황했다. 일찍이 사회에 발을 디딘 그는 살기 위해 발버둥쳤다. 정말 열심히 직장에서 일을 했지만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다. 평소 음악을 좋아해 기타를 옆에 놓고 살았다. 하지만 그것도 그의 마음을 채워주진 못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유일한 즐거움은 퇴근 후 술 마시는 일이었다. 월급은 대부분 술값으로 나갔다.

“당시 저는 10년 이상 날마다 독한 술을 마셨어요. 결국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지요. 얼굴은 사커멍게 변했고 손이 덜덜 떨렸어요.”

젊디젊은 나이에 폐인이나 다름

없었다. 1994년,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던 그에게 희망의 손을 내미는 이가 있었다. 바로 박정희 집사이다. 그녀는 만민중앙교회를 소개해 주었다. 막다른 인생 길에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었다. 전도에 귀가 솔깃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생령력 넘치는 말씀은 그를 변화시키기에 충분했다. 날이 갈수록 삶의 의미가 되찾았다. 틈만 나면 설교 테이프를 구입해 듣고, 퇴근 후에는 곧바로 교회에 와서 기도했다.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손 떨림이 사라지고 담배도 끊었다.

만민기도원 이복남 원장의 배려로 그는 1995년, 다니엘철야 기타 반주를 하게 되었다. 최선을 다해 감당했다. 그 당시 그는 돈가스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작업 특성상 밤늦게까지 가게를 열어야 수지타산이 맞았다. 하지만 이 사망 때문에 일찍 가게 문을 닫았다. 사망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에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어느 날은 피곤이 밀려와 순간 ‘하루 쉬었으면..’ 하는 생각이 스칠 때도 있었다. “아나! 그럴 수 없어” 하고 마음을 다잡고 참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충만함을 더해 주셨다. 기타를

축헌금으로 드렸다. 마음이 지치고 힘든 때가 여간 많지 않았다.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세상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며 다니엘철야 반주 자리를 지켰다. 입술로는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을 하면

적이었다. 변함없는 기도생활 덕분에 성령 충만함 속에서 일을 하니 어느 날은 하루 천만 원 이상 실적을 올리기도 했다. 십일조가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으로 늘어가고 100만 원 이상으로 꾸준히 유지됐다. 늘 말씀대로 정도를 좇으며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권면의 말씀을 명심한 결과였다.

그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맡겨진 직분도 열심히 감당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 축복을 선교헌금, 건축헌금 등 기쁨으로 하나님께 삼았다. 이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매월 십일조 200만 원 이상의 물질 축복과 팀장, 지점장, 이사진을 거쳐 최근에는 신한생명 서울중앙인수 전무이사로 승진하는 축복도 주셨다.

금년에는 바울선교회 제호 장로가 됐다. 그가 변화되기 가정의 복음화도 이뤘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목자의 가르침과 사랑 덕분입니다. 이제 장로의 소중한 직분도 받았으니 교회를 더욱 사랑하며 새 예루살렘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길 원합니다” 라고 그는 고백한다.

# 15년간의 기타 반주는 제게 축복이었습니다

윤창수 장로 (신한생명 서울중앙인수 전무이사)

잡고 찬양을 할 때 그는 천국에 가 있는 듯했다. 반주석이 있는 앞에서 기도하다 보니 그 자리가 너무 소중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니 점점 믿음도 커갔다. 이로 인해 때때로 찾아온 연단도 수월하게 통과할 수 있었다.

봉사한 지 2년 쯤 되었을 때, 돈가스 전문점이 많은 수익을 냈다. 얼마 뒤 사업 확장을 했지만 IMF를 맞아 끝내는 사업을 정리하고 말았다. 수중에 몇 십만 원밖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건

서 다니엘철야로 향했다.

“축복 주시든 안 주시든 상관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명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15년이란 세월, 변함없이 사명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 은혜였다. 그의 믿음과 행함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새 직장을 주셨다.

그가 경험해 보지 못한 보험회사에 입사해 보험설계사로 일했다. 원래 내성적인 성격이라 말 주변이 없었지만 신입사원 시절부터 영업실

## “귀가 들리지 않았어요... 이제는 잘 들려요”

고연정 권사 (1대 7교구, 3-2여선교회)

“어어! 귀가 왜 아러지?”

2009년 8월 26일 아침, 갑자기 귀가 울리고 멍멍하며 잘 들리지 않았다. 하룻밤 자고 나면 괜찮겠지 했는데 다음날도 여전했다. 이비인후과에서 검진 결과 ‘우측 돌발성 난청’이라면서 큰 병원으로 가라는 것이 아닌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아러다 평생 안 들리면 어떻게 하지?”

그러나 아내 화개하고 기도하면 낫겠다는 믿음이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이유를 찾기 시작했다. 지난 일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교구 편성 시 지역장이던

내가 조장으로 임명되었을 때 불편했던 마음, 삶 속에서 기뻐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했던 일, 진리를 모를 때 낙태수술 했던 일들이 떠올라 화개했다.

지난 8월 28일 금요일아침에 전에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기도를 받았다.

“아버지! 이 딸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신속하게 치료해 주옵소서”

다음 날 아침, 나는 기적을 체험했다. 들리지 않던 말소리가 귀에 속속 들어오

는 것이 아닌가! 너무나 신기했다. 그 후 병원 재검 결과는 우측 귀가 20데시벨(dB)로 정상이었다. 중심으로 화개할 때 동이 사서서면 것같이 우리 죄과를 기억지도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분을 찬양한다.



###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아침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신성결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부암 1동 275-77 ☎070-8223-4914, 010-4575-4194
- 사부신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 2동 109번지 벽성B/D 7층 ☎051326-1537, 010-5521-2073
- 대구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가 104-9 ☎0533356-4717, 010-2018-8410
- 새대구민교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 1동 1281 지하 ☎070-8764-3000, 010-7112-3017
- 대전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7-1 ☎042625-1205, 633-6283, 011-434-3927
- 광주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909-4 시청 강 건너편 ☎062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동 181 ☎0623372-1002, 011-601-1070
- 동광주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1001-2 ☎0622366-7001, 011-637-6443
- 울산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 ☎052257-5011, 010-9663-1537

- 남울산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052291-2253, 016-9870-1537
- 안성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02-1 ☎031652-9981, 016-278-7712
- 평택민농아교회 경기도 평택시 독곡동 488 상의 2차 101동 704호 ☎031665-1405, 011-358-5973
- 천안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성정동 722-3 ☎041677-7077, 010-3447-7077
- 공주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룡동 564-15 ☎041667-4721, 010-3708-1537
- 아산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35-16 ☎041546-1537, 011-701-0244
- 시흥민교회 충남 개령시 금암동 16-4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1동 173-11 ☎054283-7077, 010-9271-7017
- 새청주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령동 956 ☎054464-4512, 010-3343-1537
- 충주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1100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민성결교회 경남 마산시 회원구 회왕동 606-1 ☎055247-8891-2, 010-3559-9067
- 밀양민교회 경남 밀양시 내이동 1524-14 ☎055353-9992, 010-3745-2119
- 진주문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산안리 301-5 ☎055852-5815, 010-2536-2515
- 강령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 ☎055322-7055, 018-605-2254
- 창원민교회 경남 창원시 중앙동 95-3 ☎055289-9522, 011-9331-4405
- 통영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상리 965-1 ☎055848-9107, 010-5214-8891
- 경주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0541748-5777, 010-3747-5777
- 포항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4,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효자동 192-3 2층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민교회 경북 구미시 오대동 742-4 ☎054464-4512, 010-3343-1537
- 여수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토막동 500-5 ☎061652-8311, 010-3592-9522

- 목포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873-6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산153 ☎061452-7443, 010-3153-1723
- 전주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 929-1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민교회 전북 익산시 모현동 230-3 ☎063853-0675, 010-7777-7077
- 춘천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67-11 ☎033251-1144, 010-7900-2069
- 원주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63-64 ☎033637-0271, 010-7733-3731
- 강릉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명주동 12-2 ☎033641-3790, 017-334-7750
- 제주민교회 제주시 연동 2307-5 ☎064745-0675, 010-2468-2251
- 영동지성전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00-5 ☎02556-8517-8, 010-7223-2073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189-26 ☎02985-9951, 011-1717-1217, 011-719-2073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월곶동 509-1 ☎031485-9143, 017-366-5914
- 인천지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23-4 ☎032863-9857, 011-287-7369
- 군포지성전 인천시 서구 미전동 688-2 ☎032569-3835, 010-7720-7770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람동 367-4 ☎010-6355-1928
- 알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62-3 ☎031905-2419, 019-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5-1 ☎031552-7397, 010-2290-1856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갈매동 349-5 ☎02489-3766, 016-776-1017
- 부평지성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4동 800-2 ☎032528-3830, 010-7720-7770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09번지 ☎031202-8480, 010-2213-2073
- 아현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465-4 ☎031835-9103, 016-718-7458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65-1 ☎031840-2906, 019-251-3149